

# 小波와 雪舟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金大鉉\*\*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생활을 소재로 한 시적 표현  |
| 2. 소파와 설주의 생애     | 5. 여러 정서의 다양한 시적 표현 |
| 3. 序跋을 통해 본 小波의 시 | 6. 맺음말              |

## 1. 머리말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파 송명회와 설주 송운회는 20세기 호남의 중요한 문인이자 서예가들이다. 말하자면 문학과 예술이 함께 거론될 만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여기서는 이들 형제를 함께 나타낼 때는 ‘小雪’이란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小波와 雪舟의 줄임말로 사용하는 것이다. 소파 송명회와 설주 송운회는 두 살 차이의 동기간이지만, 단순한 혈연의 동기 이상으로, 일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문학과 예술에 전념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 세계를 함께 고찰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 이들 두 사람은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호남의 근대에 이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3-AS1038)

\*\* 전남대학교

난 서화가로 문집을 남긴 사람이 10여 명이 못 되는데, 이들 형제는 각각 『小波詩文選稿』와 『雪舟遺稿』라는 문집을 남기고 있다. 또 이들은 수많은 서예작품을 창작하였고, 현재 여러 곳에 남아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근대 예술인으로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함에도 그간 이들 小雪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던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호남의 한문학은 20세기에도 천여 명이 넘는 매우 많은 작가들을 배출 하였으니, 그 양적인 면으로 보아서 어느 시대보다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전남에 한정하여 말하더라도, 무안지역에서 溪山齋를 만들어 후진 교육에 나섰던 敏齋 朴琳相(1864~1944)이나, 또한 보성에서 竹谷精舍를 세워, 학문과 예술의 본거지로 삼았던 晦峯 安圭容(1873~1959) 등은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시대적으로 이들보다 약간 후대에는 顧堂이나 曉堂 등 많은 문인들이 또한 제자들과 강학을 하면서, 그들의 학문과 문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小雪은 보성의 竹谷精舍의 여러 문인들과 함께 교유하면서, 문예활동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 2. 소파와 설주의 생애

### 2.1. 소파 송명희의 생애

송명희(1872~1953)는 자가 南一이고 호는 小波이며 본관은 礪山이다. 그는 高宗 9년(1872)에 전남 보성군 읍어면에서 宋秀勉과 南原 尹氏 사이에 5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여느 이름난 문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소파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5세에 독서를 시작하였으며 7세에 시구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한다. 소파는 향리에서 才名을 날리며 과거공부에 몰두하였는데 모두가 巨擘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러

나 시대가 변하여 과거가 폐지되어 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시문창작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의 문집의 서문에서도 그가 功誨詩에 힘썼다고 하였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893년 寧齋 李建昌이 보성으로 流配되어 왔을 때, 소파는 동생 宋雲會와 함께 영재에게 찾아가 그 아래서 수학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영재에게서 文詞가 뛰어나다고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1894년 영재가 유배가 풀려 돌아가게 되자 평생 그를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전한다. 이후 1897년 겨울 江華 沙谷으로 영재를 찾아가 뵈고 그 동생 蘭谷 李建芳과 친분을 쌓아 그와도 평생지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1898년에는 淵齋 宋秉璿이 남쪽으로 유람 왔을 때 소파는 연재를 찾아가서 여러 날을 함께 보내며 수창하였다. 연재는 그 재능을 사랑하여 門弟子처럼 대해 주었다고 한다. 소파와 함께 지내다시피 하였던 회봉 안규용 또한 연재의 문인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었다.

1900년에는 소파가 定山으로 勉庵 崔益鉉을 찾아가 배알하였다. 면암은 正路를 잃지 말고 공부에 정진하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1901년에 소파는 지리산 아래 구례로 梅泉 黃玟을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화엄사 등지에서 함께 머물며 시를 논하고 수창하였다. 매천은 소파를 知己처럼 대해 주었다고 한다. 소파는 이때 白村 李炳浩 · 酉堂 尹鍾均 · 南坡 金孝燦 등 구례의 여러 문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무렵의 시가 현재 문집에 여러 편 실려 있다.

이후 소파는 서울을 오가며 東江 金寧漢, 爲堂 鄭寅善 등과도 교분을 쌓았으며, 금강산과 한라산 등지를 여행하며 많은 시를 남기다가 향년 82세에 고향에서 타계하였다. 그는 문집으로 『小波詩文選稿』를 남겼는데,<sup>1)</sup> 현

1) 『小波詩文選稿』 4권 2책은 曉堂 金聖玉이 소파의 유고 가운데 시 1200여수와 문 60여편을 精選하고, 아들 宋敘顯이 1958년에 간행한 것이다. 延昌 安圭容 · 東江 金寧漢 · 爲堂 鄭寅善 · 曉堂 金文玉 등의 서문과 竹山 安鍾南 · 廣州 李秉元 · 宋運會 등의 발문이 붙어 있다. 권1에는 시 316수, 권2에는 시 362수, 권3에는 시 370수가 실려 있다. 권4에는 산문 60여 편이 실려 있다.

재 그 안에 수록되지 못한 상당수의 작품이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 2.2. 설주 송운회의 생애

여기서는 宋運會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의 자는 世卿이요, 호는 雪舟며, 본관은 礪山이다. 아버지는 芝庵 宋秀勉이요, 어머니는 南原尹氏로 고종 11년(1874년) 전남 보성군 읍어면에서 5남1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한말의 혼돈기, 일제의 강점기와 민족의 비극 6.25를 체험하면서 그의 형과 함께 험난한 세상을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서예로 이름이 났듯이, 글씨 외에 한순간도 눈을 팔지 않았으며, 1965년 임종 때 까지도 붓으로 藝道를 실천했던 脫俗雄筆의 서예가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꿈에 하늘이 진동하여 그의 첫 이름을 震會라 하였다. 6세가 되어서는 소과와 함께 조부인 波叟 宋厚萬에게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과수는 현재 시문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저자의 집안은 대대로 문장을 잘 하였던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주는 서예와 한학을 겸전하고 있었는데, 18세 되던 해에 보성으로 유배와 있었던 寧齊 李建昌에게 나아가, 소과와 함께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영재는 한말의 대 문장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1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영재는 당시 斥洋斥倭를 주장하였는데, 주위의 모함을 받아 1892년에 전남 보성으로 두 번째 귀양을 왔던 것이다. 영재가 보성에 머문 시간은 2년이 채 못 되지만, 소과, 설주 두 형제는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경서와 서예를 배웠는데, 영재 또한 이들을 극진히 아끼며 가르쳤다고 한다. 영재는 설주의 원 이름이었던 진회를 運會라 개명하고 字를 世卿으로 호를 雪舟라고 지어주었다고 한다. 영재는 다시 벼슬에 나아갔다가 또 다시 古群山島로 세 번째 유배를 당했고, 2년 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강화도에 가서 1898년 47세

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설주는 시대적 울분을 달래면서 학문에 열중하는 한편, 글씨에 전념했으며 名山大川을 두루 편력하여 많은 詩文을 남겼다. 이런 기행시들이 현재 그의 문집에 상당수 실려 있다.

한편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자 소설의 동생 송경회는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7년의 옥고를 치루었다. 송경회는 출감 후 만주로 갔다가, 총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자 소설은 함께 만주로 가서 동생을 찾아서 데려왔다는 형제간의 우애는 널리 알려져 있다. 설주는 1933년 60세 되던 해에 형 소파를 비롯하여 여러 벗들과 금강산 유람을 다녀왔다. 이때 남긴 <금강산 유람기>가 문집에 남아 있다.

설주는 중국과 우리나라 名人들의 필법을 두루 섭렵하는 한편 明나라 문인 董基昌의 필법에 심취했다. 설주는 5체에 모두 능했으나 주로 해, 행, 초서를 썼으며 그의 진초는 ‘仙의 경지에 이른 神筆’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광복 전의 鮮展, 그 후의 國展 등에서 그의 작품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지만 서력이나 나이에서 후진들에게 평가 받을 수 없다는 자존심과 강직한 성품으로 野人으로 남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비라고 알려져 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글씨를 쓸 수 없는 날이 바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라는 생각으로 일관하였고 주위로부터는 “보성 강물이 온통 설주 선생의 붓 행구는 먹물이다.”라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그가 세상을 뜨기 하루 전 가족들 앞에서 화선지에 큰 붓으로 ‘一心’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낙관을 새기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웠다고 한다. 1965년 3월 27일 겸백면 운림리 자택에서 92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그는 나이 여섯 살에 붓을 잡은 이래 임종할 때 까지 88년간 오로지 글씨에 정진해 왔다고 한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그가 시창작도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그의 문집은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서예 작품에 대하여 “백로 한 마리가 강을 건너 하얀 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俗氣가 없는 설주의 작품 세계를 나

타내주는 말일 것이다. 선생의 아호는 설주이지만 작품에는 氷雪, 雪舟老人, 雪人, 老雪, 雪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설주는 금강첩, 빙설첩 등의 이름을 붙인 많은 서첩과 병풍서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문집으로 『雪舟遺稿』를 남겨서<sup>2)</sup>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함께 잘 나타내주고 있다.

### 3. 序跋을 통해 본 小雪의 시와 의미

먼저 간단하게나마 小雪의 문집 서발 등에 나타난 그들의 시세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집에는 늘 서발이 따르는 것이고, 그 찬자들에 의하여 저자의 시가 평가받고 있다. 물론 대개 그 의미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 또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작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이다.

『소과시문선고』는 앞서 말한 바처럼 여러 편의 서문이 붙어있다. 먼저 이들 서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安圭用의 서문이다. 그는 서문에서 소과는 약관이 못되어 功令詩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였다. 공령시는 科詩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곧 과거시험이 없어지자 그 시험 준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古調와 近體에 전념하여 손에는 漢魏의 시를 놓은 적이 없고, 입으로는 唐宋의 시를 읊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침식을 잊고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마침내 神妙함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눈으로 본 바와 정으로 떠낸 것이 시 아닌 것이 없었으니, 聲音이 鏗鏘하고 色彩가 纒爛하여

2) 『雪舟遺稿』는 형인 宋明會가 동생의 손자들에게 흠어진 시문을 수집하게 하여 자신이 서문을 쓰고, 安圭容, 宋紋顯 등이 발문을 써서 1970년에 편찬했다. 현재 그의 문집 속에는 총 504수의 시와 42편의 문이 있다. 3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小波 宋明會 <雪舟遺稿序>, 1권에는 270수의 시, 2권에는 234수의 시, 3권에는 서간문, 기문 등 42편의 작품이 실려 있고, 부록에는 묘표, 발문 등 3편의 글이 있다.

사람들의 이목을 빼앗아 자신도 모르게 심취하고 정신을 깨어나게 한다. 참으로 空靈의 재능과 난숙한 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평하였다.

두 번째 서문은 동강 김영한의 서문이다. 동강은 호남에서 자고로 많은 시인이 나왔다고 하였다.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 백호 임제 등이 나타나 이름을 날렸다고 하였다. 근세에는 매천 황현이 그들의 뒤를 따랐는데, 또 그 뒤에는 소파 송명회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위당 정인보의 서문이다. 위당은 시를 잘하는 선비는 반드시 性靈이 있다고 하였다. 근세에는 황녹차, 문수는 같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들을 따라 소파 송명회가 영재 이선생, 매천 황선생에게 배워, 시에 뛰어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도 호남의 시는 옥봉, 고죽이 일으켰고, 매천이 따랐는데, 이를 이어 소파가 나왔다고 하였다.

이들 세 서문 가운데 나중의 두 서문에서, 소파는 호남의 시단에서 매천 황현을 잇는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근체시를 위주로 하였으며 창작에 있어서 시인의 靈感을 중시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봉 안규용의 서문에서는 空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위당 정인보는 性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소파선고발>에서도 죽산 안중남이 소파는 空靈, 超逸한 재주가 있다고 평하였다. 공령은 24시품 중에는 超詣와 비슷한 시 풍격을 가리키는 평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보통을 초월한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는 超曠하고 飄逸함을 합한 풍격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莊子』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 때문인지 장자의 모티브를 빌려 온 내용들이 상당 수 눈에 보인다.

소파의 시에도 직접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작품이 있다. 권1의 첫 번째 작품 <鍊詩>이다. 이는 소파의 시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東邦詩學擬中華	우리나라 시학은 중국을 배워서
祖宋宗唐幾大家	송당을 으뜸으로 삼으면 거의 대가라네.
鍊到鏗鏘金有響	담금질하여 치게 되면 쇠는 멋진 소리 올리고
磨成璀璨玉無瑕	갈아서 빛나게 되면 옥은 티가 없어진다네.
務祛陳腐方爲雅	힘써 진부함을 털어버리면 아름답게 되니
悟得空靈始入佳	공령을 깨달아 얻으면 비로소 아름다움에 들어간다네.
歷盡深幽艱險境	깊고 그윽함을 다 지나면 다시 험한 곳이 어렵지만
一條坦路不欹斜	한 줄기 평탄한 길이 기울지 않게 되네.

여기에서 소파는 열심히 시구를 단련[鍊]한다는 생각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진부함을 털어버리는 것도 그러한 시의 단련에서 얻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에서는 ‘공령을 깨달아 얻으면 비로소 아름다움에 들어간다네.’라는 구절을 음미할 만하다. 바로 이 空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에서도 그의 시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論近體和雲人>이다.

大家元不限藩籬	대가는 원래 울타리를 한정하지 않으니
豈止蘇黃以自期	어찌 다만 소식과 황정건으로 자신을 기약할 것인가
妙悟由心難與道	妙悟는 마음에서 나오니 더불어 말하기 어렵고
精研下手且須遲	정밀하게 연구하여 쓰는 것이 더디어야만 하네.
空明月印潭中影	비고 밝은 月印은 못 속의 그림자로 있고
清淡梅胎雪後枝	맑고 담박한 梅胎는 눈 내린 가지에 있네.
未必勞勞尋別徑	반드시 수고롭게 다른 길을 찾지 말 것이니
從來眞境在無爲	종래의 眞境은 無爲에 있다네.

여기서 소파는 시 창작에 있어서 시인의 영감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嚴羽와 王士禎 등의 시론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설주의 시세계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는가? 소파는 <雪舟遺稿序>에서 설주는 시에 능하여 언제나 좋은 날이 되면 누대에 올라 시를 짓고,



벗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도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원고를 간직하지 않고 억지로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그의 시가 아주 일부만 남아있지만, 그의 시의 ‘清新高妙’한 모습은 시인의 뜻에 잘 들어맞는다고 하였다. 시문집을 모아서 편집하였는데, 나중에 간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가 단지 글씨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능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雪舟詩稿跋>이 회봉 안규용에 의하여 지어졌다.<sup>3)</sup> 회봉 안규용은跋에서 설주시에 대하여 “티끌이나 진부한 기운이 없으며”, “시 속에는 용이나 뱀이 받침대에 구부리고 있는 형상”이 있고, “조용하고, 궁색하지 않고, 깨끗하고 산뜻하며, 씹는 맛이 있다.”라고 아주 높게 평하였다. 설주는 시인으로서보다 서예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시세계가 ‘清新高妙’하다는 평어는 주목되는 말이다.

#### 4. 생활을 소재로 한 시적 표현

이제 이들 小雪의 시세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집을 보게 되면, 小雪의 시는 무엇보다 생활을 소재로 하는 시가 많다. 이는 20세기 근대 문인들의 작품집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근대의 문인들은 뜻이 통하는 동학들끼리 함께 어울려 교류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다보니 만남과 이별이 늘 뒤따라 다녔고, 그러한 결과 교류시가 아주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물론 교류시가 근대 이전의 문인들에게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근대의 문인들은 그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3) 회봉은 보성에 죽곡정사를 지어 학문을 익히면서 제자들을 기르면서 도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소파보다 한 살 아래, 설주보다 한 살 위의 나이로, 이들은 서로 형제처럼 지냈다. 앞으로는 竹谷精舍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보성의 문인들과 예인들의 문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있다. 이러한 교유시 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시작품 등 생활을 소재로 한 시적 표현을 살펴보겠다.

#### 4.1. 일상적 교유로서의 시 작품

동료 문인들과의 교유시는 그 수를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소설의 시에는 晦峯이나 曉峯, 혹은 可石, 老石 등과 함께 어울리면서 수창한 시들이 많이 남아있다.

『소과시문선고』는 영재 이견창, 매천 황현, 연재 송병선 관련 시들을 제일 먼저 실어서, 이들 자료를 일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가 스승으로 삼았던 문인들과의 작품 또한 넓은 의미의 교유시라고 하겠다.

소과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雲人 宋鴻, 愚石 奇世哲, 月舍 尹天禧 등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시를 지었다.

설주 또한 벗들과 어울리며 작시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첫 번째 시인 芝齋 金震浩를 비롯하여, 夢羲 曹兌承 등 여러 문인들과 시를 짓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설주유고』의 첫 번째 <風詠齋 金芝齋 題吟> 시 2수 중 첫 번째이다.

故人眉宇老逾清	친구의 용모는 늙을수록 더욱 맑아
螢雪多年學又成	오랜 형설지공으로 학문을 이루었다네.
誰遣塵愁生髮白	누가 세상 근심 보냈는지 머리는 희었다.
不緣仙術已身輕	선술에 의하지 않고도 몸은 이미 가벼워졌다.
梅花不負新春約	매화 필 때 새 봄의 약속을 저 버리지 말게.
杜宇何知遠客情	두견새가 멀리 온 나그네의 마음을 어찌 알겠나마는.
可愛滿天風雨裡	좋은 것은 하늘 가득 비바람 몰아칠 때도
惟君全得讀書名	오직 그대만이 독서하는 이름을 온전히 얻었구려.

이처럼 친하게 어울리는 동료 문인들과의 시는 상당수가 된다. 하늘 가

득 비바람이 몰아친 것은 아마도 세상의 험난함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친구는 조용히 독서하는 독서인으로서 이름을 얻었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다.

#### 4.2. 농촌 생활의 모습을 그린 작품

이러한 일상적인 교유시 이외에 농촌 생활을 그린 작품들도 많이 나타난다. 소파의 <程川觀獵>이라는 시는 보성군 미력면 근처를 흐르는 정자천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지은 시이다. ‘창포는 바람에 날리고, 버들가지도 비스듬히 날리네.’라고 강변의 자연 풍경을 읊고 있다.

그러나 소파는 농촌의 이러한 풍경을 그리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打麥>이라는 시에서는 세금이 중한 가난한 농가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난한 농가의 모습을 담은 작품은 여러 편이 있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이런 종류의 시로 <傷時>라는 시에서도 ‘밭을 갈아도 먹을 수 없고, 베를 짜도 옷이 없네.’로 시작되어 가난한 농민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농가의 참상을 비관적으로만 그린 것은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동하는 농촌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리기도 한다. 예로 <五月田家>라는 시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농사에 바쁜 오월 농가의 정경을 그린 시이면서도, 삼살개는 누워 집을 지키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다.

匏蔓延墻芥始花	박 덩쿨 담장에 뻗어나고 겨자 꽃 피었는데
四隣寂寂午陰斜	사방은 적적하고 낮 그늘 기울었네.
夫耕婦饁翁姑稼	남편은 밭 갈고 아낙은 들밥 내고 시부모들 모심으니
只有靑龍臥守家	다만 푸른 삼살개만 누워서 집을 지키고 있네.

설주 또한 농촌의 생활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모습은 권 1의 <田家秋景> 시에서도 보인다.

隱映茅茨溪上村	시냇가 마을에 띠집이 아득히 비쳐
老翁笑立媪開門	노옹이 웃고 서 있으니 할미가 문을 열어주네.
早柿已紅梨棗熟	조홍감은 이미 붉고 배와 대추도 익어
引竿撲取戲兒孫	장대로 쳐서는 손자 녀석 즐겁게 하네.

농촌의 한가하고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그리고 있다. 강가를 거닐다가 석양에 집에 이르니 어느새 아내는 남편이 이른 것을 알고 와서는 반갑게 맞이한다. 조홍감도 벌써 붉게 익었고, 배와 대추도 탐스럽게 익었다. 풍요로움이 물씬 배여 있다. 사랑스런 손자에게 과일을 따서 준다. 꾸밈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집 담장 안을 내다보는 것 같다. 이처럼 자연 생활의 정취를 읊은 시들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설주는 농촌생활에 대한 시가 여러 편 있어, 농촌의 정서를 그리는 데 힘을 쏟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漁父>, <田翁>, <楊柳>, <移秧> 등의 시가 그러하다.

#### 4.3. 은거의 삶을 그린 시 작품

소설의 시에는 고요하게 은거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자주 나타난다. 은거라고 하여 깊은 산 속에 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촌의 생활 자체가 은둔자의 삶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 제목에 山居, 山齋 등이 들어간 시가 많이 실려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소파의 <山齋秋興>은 모두 9수의 연작시이다. 어느 깊은 산에 들어가 세상과 떨어진 쓸쓸한 느낌을 읊은 시이다. 첫 수에서는 ‘나그네의 회포를 풀 길 없는데 / 쓸쓸하게 기러기만 날아가네. / 절벽 아래 가을바람 나뭇잎 위에 불고 / 빈 마당에 차가운 비 거친 이끼 위에 떨어지네.’ 라고 읊

었다. 전체적으로 고독한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소파는 이 외에도 <山居卽事>, <山齋偶成> 등 산촌 생활의 쓸쓸한 정서를 담은 시작품도 여러 편이다.

설주 또한 조용한 생활을 그린 작품들이 많다. <雪夜>에서는 눈 내린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坐臥山房夜正寒	산방에서 앉았다 누웠다 하니 밤 추위가 밀려들어
羈愁添着就詩難	나그네의 근심이 시를 더욱 어렵게 하네.
不知曉雪窓間映	새벽 눈이 창가에 비치는 줄도 모르고,
睡起還疑月在欄	잠에서 깨어 달이 난간에 비추나 하였네.

마치 송강 정철의 낙엽 지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시상과 비슷하다. 설주는 이와 같은 서정적인 의취를 자아내는 시구도 자주 만들었다. <海上暮春 3>을 보면 그러한 일면을 더욱 여실히 느낄 수 있다.

門扉終日任風開	문짝은 종일토록 바람 따라 열어 놓고
芳草青青細雨來	방초 푸른 곳에 가랑비가 내리네.
春暮江南花似雪	봄 깊은 강남에는 꽃이 눈처럼 흰데
杜鵑聲裡客登臺	학 울음소리 들으며 대에 오른다.

만춘의 서경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건똥 부는 바람이 시원하여 하루 종일 방문을 열어놓았다. 들녘의 풀들은 푸릇푸릇한데 가랑비가 내려 더욱 맑고 싱그럽다. 정지상의 시구 ‘雨歇長堤草色多’를 연상케 한다. 강변에 핀 꽃들은 눈처럼 희다. 이 때 시인은 새소리를 들으며 정자에 오른다고 하였다.

이처럼 小雪의 생활시는 교유시, 농촌 생활을 그린 시, 은거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시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소설은 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를 자연스럽게 창작하여 나갔던 것을 알 수 있

다.

## 5. 여러 정서의 다양한 시적 표현

어찌 보면 모든 시는 생활하면서 짓는다지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좀 특별한 경우에 지은 시들이 또한 아주 많다. 이런 작품들은 생활시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고, 작자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로는 시대적인 사건을 대하고 시를 짓는 경우, 여행이나 기행을 하면서 지은 시들, 또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시를 짓는 경우, 혹은 그 밖의 여러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5.1. 시대적 사건을 그린 작품들

소파는 경술국치 소식과 광복의 소식을 듣고 각각 시를 남기고 있다. 소파가 경술의 변을 듣고서 지은 <聞庚戌之變而作> 시를 살펴본다.

未死徒聞不忍聞	죽지 못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소식을 들으니
莫將時事向余云	時事를 나에게 말하지 마오
至今尙說龍蛇恥	지금도 오히려 임진란의 수치를 말하는데
止竟同歸鳥獸群	다만 鳥獸의 무리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네
滅胤終緣虞有道	胤를 멸망시킨 것은 虞에게 도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用夷非爲夏無君	오랑캐를 쓴 것은 夏나라에 임금이 없기 때문이 아니네
那當訴帝驅風伯	어떻게 上帝에게 호소하여 風伯을 거느리고
淨掃長安蔽日雲	장안의 해를 가린 구름을 깨끗이 쓸어낼 수 있을 건가

첫 구에서 경술의 변을 죽지 못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하

였다. 장안의 해를 가린 구름은 친일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을 모두 소탕하는 그의 바람을 담고 있다.

그러한 소파는 광복의 기쁨을 읊은 시로 <乙酉七月七日聞復國志喜>라는 두 수의 시도 있다. ‘섬 오랑캐가 창궐한지 얼마나 되었는가 / 우리나라 원수를 물리친 자 마침내 누구인가? / 조수와 무리지어 사는 것 또한 부끄러워 / 임진년의 지난 겁탈 탄식할 만하네.’라고 하였다. <聞庚戌之變而作>의 함련의 구절이 여기서도 다시 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설주도 <乙酉七月七日聞復國> 시에서 해방을 맞이한 감회를 나타내고 있다.

快雪邦讐始展顏	나라의 원수를 쾌하게 설욕하니 비로소 얼굴이 펴지고
閉門三十六年間	문을 닫은 지 삼십 육년 간이네.
天誅竟不容元惡	하늘이 벌하니 마침내 악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人類初無比至頑	인류에 지극한 완고한 무리 애당초 없었다네.
檀木春回新雨露	우리나라 봄이 되어 우로가 새로우니
槿花日出舊江山	무궁화가 옛 강산에 다시 피어나네.
同胞熱血知多少	동포의 뜨거운 피 그 얼마인가
頭白邊霜敵愾還	흰 머리 희끗한 사람들도 적개심이 돌아오네.

이들 소설은 나라의 치욕을 당하거나 광복을 당할 때, 이처럼 시로써 울분과 기쁨을 나타냈다. 특히 설주의 을유년 시는 동포들의 뜨거운 피라는 감동에 솟구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5.2. 여행과 기행에 따른 작품들

소파는 <維摩寺>, <宿松廣寺>, <清涼寺澆暑> 등등 절에서 머물면서 지은 여러 편의 시가 있다. 이미 20세기 근대에는 불교에 대한 수용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특히 소파는 절에 자주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금의 북한 지역을 돌아보고 지은 <平壤>, <箕子陵>, <松京懷古> 등 여러 편의 시도 남아 있다. <평양>시에서는 ‘서경의 풍토가 진실로 좋은 풍속이니 / 남국의 문장이 좋은 때를 만났네. / 기자릉의 옛 풀은 끝없는 한이 일어 / 반은 노래 부르고 반은 시가 되네.’ 등의 구절은 무척 흥미로운 작품이다. 남국의 문장은 아마 시인 자신을 가리킨 듯 하다. 그 무렵 동생 설주와 함께 만주로 가던 때, 평양 등지를 지나며 머문 듯 하다.

또 소파는 금강산을 가서 지은 시가 여러 편이 있다. <內金剛長安寺>, <明鏡臺> 등 거의 20여 수 가까운 기행시들이 실려 있어서 주목될 뿐 아니라, <俗離山記行>, <智異山>, <漢拏山> 등등 산에 대한 시들이 여러 편이다.

특히 소파의 시 가운데 제주도를 가서 감상을 적은 시들이 여러 편 실려 있는데, <瀛洲十景> 시는 제주도의 十景을 7언 절구 열 수로 지은 의미 있는 작품이다.

설주도 여행을 하며 지은 시들이 많다. 가까운 곳으로는 보성 문덕 대원사 근처의 遇溪를 가끔 찾았던 것 같다. 우계에서 죽천 선생을 생각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선생의 명덕은 나의 발길을 부추겨 / 조각돌 빈산이지만 유적은 중하다네. / 산골의 해는 푸릇푸릇 사람은 보이지 않고 / 떨어지는 꽃잎 우는 새들만 부질없이 마음을 상하게 하네.’ 여기서 선생의 명덕이란 竹川 朴光前을 가리킨다. 그는 16세기 보성의 이름난 문인이다. 그는 우계에 원림을 조영하였던 것 같은데, 그 흔적이 당시에 남아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설주의 시 가운데 또 <旅窓述懷>는 자신의 삶을 여러 상황에 비유하여 무척 재미있게 그렸다.

一臥清齋萬慮纖    깨끗한 집에 누우니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4) 김대현, 「죽천 박광전의 문학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2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여기에 죽천의 <遇溪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掩門楊柳替疎簾	문을 가린 버드나무가 성긴 발을 대신하네.
蟻巡苔礎勤相續	개미는 이끼 낀 섬돌을 부지런히 서로 이어 다니고,
蜓掠風蒲銳末粘	잠자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부들이 날카로워 앉지를 못하네.

나그네의 삶이 마치 개미처럼 부지런히 움직여 다니는 듯하지만, 잠자리가 부들에 앉지 못하듯 어디에 정착할 수 없다는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나그네의 삶을 다룬 旅懷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다.

설주도 소파처럼 여행을 많이 하였다. 제주도를 가던 도중에 쓴 시로 <瀛洲道中>이라는 시도 있어, 기행시의 재미있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아마 소파와 함께 제주도를 간 것이라 여겨진다.

海門天遠欲無山	해협이 하늘은 멀어 점점 산이 없어지고
漁帆悠揚獨去閒	고깃배는 멀리 떠서 홀로 한가롭게 간다네.
潮落浦娥爭採蛤	조수 빠진 아름다운 포구 여인들 다투어 조개를 캐고,
白鷗飛出綠蒲間	흰 갈매기 푸른 포구 사이를 날아오르네.

어느 포구의 모습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 아마 전남의 어느 항구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포구 등 떠나고 이별하는 곳은 시인의 정취가 특별한 곳일 것이다.

설주는 <登瑞石山詩>, <宿圭峰庵>도 있어서 무등산에 올라갔다 온 감회를 적고 있다. 산을 매우 좋아하여 여러 산을 오른 다음 시를 썼다고 보인다. 속리산을 올라 <俗離途中>, <法住寺>, <文藏臺>, <天皇峰> 등 10여 편의 시를 남겼다.

또 설주는 충청도에 가서 <觀善齋與諸伴唱酬> 2수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수의 시를 남겼다. 만동묘가 있는 선유동에 가서 읊은 <華陽九曲> 10수는 주자의 <武夷權歌>에 빗댈 수 있는 佳作을 지었다. 금강산에 가서

지는 <楓岳>, <明鏡臺> 등등 산행시가 몇 수 실려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 5.3.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들

또한 여성의 시적 화자를 등장하거나, 여성의 정서를 대신 그린 작품들도 있다. 소파의 <春閨怨>이라는 작품에서는 ‘비단 장막 향기는 사라지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 봄바람은 불어와서 마음을 상하게 하네. / 뜰에 핀 꽃비를 맞아 붉은 색이 사라지려 하고 / 언덕 위의 버들은 안개에 쌓여 푸른색을 찡그리네.’ 라고 하였다. 붉고 푸른 본디의 색이 사라지려하는 아쉬움을 여성의 마음과 결부시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그의 <老妓>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비단 장막 추위가 들어 더디 일어나지만 / 봄바람은 어느 곳이고 아름다운 기약을 향하지 않은 곳 없네. / 춤추는 옷은 마치 남은 꽃향기 같아 / 화장 거울에 먼지가 끼어 달이 숨은 때와 같네.’ 라고 하였다. 늙은 기녀의 모습을 쓸쓸히 그리고 있다.

설주도 <老妓>라는 시에서 늙은 기녀에게 봄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소파는 노기의 쓸쓸한 모습을 그렸지만, 설주는 단지 봄바람을 따뜻하게 받고 있는 노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街頭楊柳碧斜斜	길 가의 버드나무 푸르게 흔들리고
白馬王孫過我家	백마 탄 왕손은 내 집 앞을 지나가네.
獨有東皇恩不盡	다만 봄의 신은 은혜를 버리지 않아
春風吹送舊時花	봄바람이 옛날의 꽃에도 불어온다네.

여기서 기녀 자신은 舊時花라고 하였다. 헤어화가 아니라 구시화라는 표현을 써서, 늙은 기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마음을 그리는 것이 호남 한시의 오래된 전통인데, 이들 小雪의 시에서도 그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 5.4. 그 밖의 다양한 시 창작의 모습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의 시 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많다. 소파는 <夢>이라는 시처럼 꿈꾸는 세계를 그리는 작품이 매우 많다. 그의 도선적인 취향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遽遽自樂黑髭鄉	스스로 달콤한 꿈을 즐기다보니
不識身猶臥在牀	내 몸이 침상에 누워있는 걸 모른다네.
千里家山常咫尺	천리 고향이 언제나 지척이지만,
一場富貴亦荒唐	한 바탕 부귀는 허망한 것이지.

이처럼 꿈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이 여러 편 있다. 위의 시는 꿈의 비현실성을 재미있게 나타낸 것이지만, 꿈이 인생의 허망함과 관련이 된다는 내용을 다룬 시도 자주 보인다. 인생의 허망함을 다룬 내용으로는 <春燕>이라는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戀戀常思故國春	그리워하며 늘 생각하는 건 고향의 봄
春來還復點傷神	봄이 되면 또 다시 조금 마음이 쓸쓸하지.
漢宮寂寞收歌舞	한궁은 적막하여 가무가 없고
殷社荒涼廢祀禋	은사는 황량하게 제사가 끊기었네.
萬里海山忘路遠	만리 바다 길이 먼 것도 잊고
一天風雨定巢新	은 종일 풍우에도 새 집을 짓네.
那堪王謝堂前過	어찌 견디리, 왕사당 앞을 지나가면
太半今非舊主人	태반이 지금 옛 주인 아니라네.

尾聯은 劉禹錫의 <烏衣巷> 시에서 빌려온 것이다. 오의항은 강소성 강녕현 남쪽에 있는 지명이다. 옛날 동진의 재상인 왕도, 사안 등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들의 거처를 王謝堂이라고 불렀다. 귀족들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이 바뀌면 부귀도 따라 바뀐다는, 무상함을 이 시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소과의 시 가운데 노장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春夢>이라 하는 꿈에 대한 시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幽人困酒杏花天	은자는 살구 꽃 아래서 술에 취하여
頃刻游魂斷復連	잠시 떠도는 혼이 끊어졌다 이어지네.
內翰風流成幻境	한림학사의 풍류처럼 오묘한 경지에 이르고,
南華達觀悟眞緣	장자의 달관처럼 진연을 깨닫는다네.
空濛青艸池邊雨	어두침침한 푸른 풀 연못가에 비는 내리고
點澹黃梁枕畔烟	황량이 익어가는 배게 머리에 연기는 이네.
現在吾生原是夢	지금의 내 삶이 원래 꿈이라면
推知過去未來年	과거와 미래를 미루어 알겠네.

시의 전반에 장자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소과는 인생을 꿈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가 여러 편이 있다. <老僧>에서도 ‘한 꿈만 속세의 인연을 끊으려 하네.’ 라는 등 꿈에 대한 시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소과는 풍속시라고 할 만한, <賣暑謠>, <有饋耳明酒> 등의 시가 있어, 더위를 판다거나, 귀밝이술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당시의 풍속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또한 설주는 죽음을 애도하는 시 가운데 특히 감성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여럿이어서 주목된다. 예를 들면 설주는 부인이 돌아가자, <悼亡室> - 죽은 아내를 추도함 - 이라는 시를 남긴다. 다음과 같은 매우 애처로운 시이다.

自我騁君後	내가 그대를 맞이한 후부터
無心過一生	무심히도 한 평생이 지났구려

食貧從我老	가난하면서도 나를 따라 늙었으니
含淚送君行	눈물을 머금고 그대를 보내네.
卜宅人云吉	뭇자리 길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傳家子守成	집안의 자식들은 잘 지켜 나가겠지.
重逢知不遠	다시 만날 날 멀지 않았으니
相說此時情	이 때의 정을 서로 기뻐하세.

또한 설주의 <晦峰處士挽> 9수는 그가 평생의 지기였던 회봉의 죽음에 대하여 만시를 쓴 것이다. 그는 회봉 안규용과 각별하게 평생을 함께 보냈는데, 만시를 9수나 쓴 자체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이처럼 이들 小雪의 시는 그들이 이룬 시적 성취만큼이나 폭 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 6. 맺음말

소파와 설주는 20세기 근대 호남의 문인이다. 이들은 흔히 서예가로서만 알려져 있지만, 시문집을 남긴 문인이다. 소파와 설주는 형제간이면서, 일생을 동지처럼 함께 살아간 예인들이다. 근대 한문학 연구가 활발해지려면, 이들 잊혀진 20세기 문인들에 대한 연구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파, 설주의 문집의 서발에 나타난 그들의 평가를 먼저 살펴보았다. 소파는 특히 시에 뛰어나 매천을 잇는 호남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 창작에 대하여 空靈을 중시하였는데, 그는 성령이나 영감 등 시인의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들의 시는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단히 많다. 많은 작가들이 대체로 생활의 餘滴처럼 시 작품을 짓지만, 이들 小雪의 작품에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선 交遊詩들이 다량으로 눈에 뜨인다. 보성의 회봉을 비

롯한, 효봉, 노석, 낙천, 백현 등등 여러 학자, 문인,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지냈던 모습이 문집에 여기저기 작품으로 남아 실려 있다. 생활시는 이러한 교유시 외에도 주로 농촌생활의 모습을 그리거나, 은거하는 山居의 모습을 다룬 내용의 시들이 많다.

또한 다양한 서정을 시로 나타내었는데, 시국을 다룬 시들도 여러 편이 남아있다. 경술국치, 해방 등을 맞이하여 감회를 읊은 시들이 있다. 또한 많은 기행시가 남아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히 금강산 유람 후의 여러 작품들, 무등산을 오르고 난 후 지은 작품들은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남아있다. 여성의 삶의 모습을 다룬 여러 작품들이 있다던가, 특히 소파는 <꿈>이라는 노장적 세계관과 유사한 모티브의 작품들을 여럿 남기고 있는 점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는 이들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 가운데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호남 한문학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많은 작가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여 종에 육박하는 한문 문집이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

## 참고문헌

『小波詩文選稿』

『雪舟遺稿』

『晦峯遺稿』

구사회, 「석정이정직의 구례기행과 작가지남」, 『한국어문학연구』 4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기태완, 「황매천의 중국시에 대한 시각」,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김정환, 「20세기 구례의 시사 연구」, 『어문논총』 제16호,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

소, 2005.

박우훈, 「현산 이현규의 생애와 교유」, 『인문학연구』 30권2호, 충남대인문학연구소, 2003.

이월영, 「석정 이정직의 문학론 고찰」, 『어문연구』 46집, 어문연구학회, 2004.

장선희, 「매월음사연구」,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학회, 2001.

<투고일 : 2006. 1. 12.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K C I

<Abstract>

## A Study of Sopa and Sulju's life and poetry

Kim, Dae-hyun

This thesis is a study about life, poetry and prose of Sopa(小波), Song, Myoung-hoe(1872~1953) and Sulju(雪舟), Song, Un-hoe(1874-1965). The two people are well-known as literature and calligraphy in modern Honam province in the 20th century. They made anthologies called *Sopasimunsungo*(小波詩文選稿) and *Suljuyoogo*(雪舟遺稿). They include a great number of Hansi(漢詩) and prose. From a preface and epilogue, especially Sopa had a theory of literature which attaches importance to inspiration. They mainly wrote poetry based on daily life.

Therefore, here were many poems dealing with companionship and rural life. And also they created works criticising phases of the times. They changed various motives into beautiful works with their susceptibility. They are representative of Honam literary men who invented poetry and calligraphy as well as poets in the 20th century.

**Keywords** : Sopa(小波), Sulju(雪舟), Sopasimunsungo(小波詩文選稿), Suljuyoogo(雪舟遺稿), Honam literary